

한국 근현대문학 정리 활발하다

장르별로 작품선집 잇따라... 총체적인 문학사 계기 마련

광복 50년을 맞아, 한국 근현대 문학사를 정리하여 책으로 엮는 작업이 활발하다. 이에 따라 의미있는 문학서들이 속속 출간되고 있는데, 《한국 소설 문학 대계》(류보선 외 엮음, 동아출판사), 《한국 문학 50년》(권영민 엮음, 문학사상사), 《해방 50년, 한국의 소설》(홍정선 외 엮음, 한겨레신문사), 《한국 대표 중단편 소설 50》(권영민 외 엮음, 중앙일보사), 《한국의 문학 비평》(권영민 엮음, 민음사) 《한국의 수필 106선》(이철호 외 엮음, 기린원) 등이다.

신소설에서 90년대 소설까지

《한국 소설 문학 대계》, 신소설에서 90년대 현대소설까지 우리 근현대소설사의 주요 작가 166명의 작품들을 한국 출판사상 최대 규모인 1백권으로 집대성 했다. 93년 10월 경부터 약 2년여에 이르는 준비기간을 거쳐, 해방 이전 작품을 수록한 1차분 30권이 2월 말경에 첫선을 보였고, 해방 이후부터 70년대까지의 2차분 30권이 4월 말에 출간됐다.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작품을 수록한 나머지 40권 중에서 39권이 이미 출간된 상태이고, 나머지 1권도 이달 안에 출간될 예정으로 있어 완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기존의 다른 전집과 변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전집 제작이라는 방대한 작업을 시작하면서 원로 평론가들의 이름을 내걸지 않고 30대 중반의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평론가들에게 작품 선정 작업을 맡김으로써 젊은 시각으로 선별한 작품들을 수록했다는 점이다. 또한, 월북작가의 작품을 수록한 최초의 문학전집이라는 점과 2백여명의 평론가들을 동원해 각 권마다 2백자 원고지 1백장 내외의 분량으로 작가와 작품에 관한 해제를 덧붙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수록된 작가와 작품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먼저 염상섭의 <무화과>가 눈길을 끈다. 이 작품은 <삼대>의 속편이라는 이유로 여태까지 한번도 소개되지 않았던 작품이다. 또,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 소설로 꼽히는 재북작가 이복명의 <질소 비료 공장>과 월북작가라는 이유로 소개되지 못했던 최명익, 유헌립 등과 같은 모더니스트 계열 작가들의 수준 높은 작품들이 이번에 발굴, 조명됐다. 기존 문학 전집들이 단편 위주로

백권에 달하는 소설전집에서부터

비평집, 수필선집에 이르기까지

한국근현대문학을 되돌아보는

다양한 기획물들이

광복 50년을 맞아 선보이고 있다.

특정 경향이나 주제를

지나치게 의식해온 우리 문학에

총체적 접근의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작업으로 평가된다.

구성되던 것에서 벗어나, 한국문학의 고전으로 일컫는 김동리, 황순원 등의 작품들을 중단편과 장편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문구, 윤홍길 등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중견 작가들의 유명 작품들과 90년대 들어 기존 소설 문법에서 벗어나 색다른 문체를 선보임으로써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박상우, 김소진 등의 작품들이 고루 수록되어 최근 소설의 흐름을 총괄하고 있다.

《해방 50년, 한국의 소설》은 1945년부터 1995년 사이에 씌어진 소설을 대상으로, 지난 50년 동안 우리 민족이 영위해온 일상적 삶을 소설적 차원에서 감지할 수 있는 작품들을 선정하여 세권으로 엮었다. 문학적으로 뛰어난 작품보다는 우리 민족이 살아온 역사적 삶의 실체를 가장 모범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을 선정함으로써, 질곡의 삶을 살아온 우리 민족의 총체적 삶과 근현대 소설 문학사의 맥락을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채만식부터 정현철까지 전부 42명에 달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각각 한편씩 시대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한국 대표 중단편 소설 50》은 이태준에서부터 윤대영에 이르기까지 38명의 작가들의 작품을 다섯권으로 묶었다. 한국 문학사 속에서 평단의 주목을 받고 있는 중단편 50편을 수록하고 있으며, 정호웅 외 17명의 문학평론가들이 작품마다 작품의 해설을 실었다. 각 작가의 작품 활동 및 경향을 담은 '작가소개'란과 각 작가와 작품에 관한 '주



한국 근현대 문학 정리를 정리한 책들.

요자료 목록'을 첨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문학 비평》은 1985년에 《해방사 10년의 문학》, 1991년에 《한국 100년의 문학》이라는 계명으로 각각 증보를 거듭해온 책으로 이번에 634면에 달하는 단행본 한권이 추가되어 모두 두권으로 출간됐다. 이번에 새로 보완된 제1권은 1896년에서 1945년까지의 기간에 박은식, 신채호, 최남선, 최재서 등에 의해 이루어진 문학비평을 정리하고 있으며, 제2권은 1945년에서 1990년까지의 기간에 한효, 김동리, 김광섭, 김윤식, 백낙청, 김현 등에 의해 이루어진 문학비평을 담고 있다. 분단시대의 문학비평은 분단의 논리가 지배해온 민족사적인 모순에 대한 문제적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인식을 토대로 하여, 통일시대의 문학을 지향해야 한다는 기조로 모두 81편의 평론이 엮여졌다.

문학비평의 흐름 재조명

《한국 문학 50》은 광복 이후 50년에 걸친 한국문학의 성과를 정리하고 재조명했다. 책의 서두에 한국 현대 문학의 흐름과 성과를 전반적으로 정리한 서설을 실었으며 모두 8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 제4부에 걸쳐 시, 소설, 비평, 희곡 등의 영역을 김윤식 등의 전문 비평가들로 구성된 필진들이 분석, 검토하고 있고 제5부는 광복 50년의 문학에 대해 개괄적인 조명이 이루어졌다. 제8부에서는 문학인들의 새로운 제언을 싣고 있는데, 중진 학자와 소장 비평가

들의 좌담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과 태도를 담고 있다.

또한, 광복 이후 50년 동안 발간된 창작시집, 창작 소설집, 비평집 등의 단행본 13,561권의 총목록과 전국 각 대학에서 발표한 한국 현대문학 분야 2,321명의 석사학위 논문과 355명의 박사학위 논문 총목록을 책 뒤에 수록하고 종합 분석했다.

이외에도, 수필문학을 정리한 《한국의 수필 106선》이 출간되어 있는데, 다양한 계층을 수용하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필문학의 위상 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발간된 것이어서 의미가 깊다. 김구·김동진·신채호·안창호·장지연·주시경 등 구한말의 독립지사들과 문인들의 작품과 85년 이전에 등단한 현존 수필가들의 작품을 망라함으로써 한국 수필의 50년을 개관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근현대 문학사를 정리하는 문학서들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하여 문학평론가 권영민(47, 서울대 국문과 교수)는, "지난 50년간의 우리 문학은 작품사적인 정리가 미흡했다. 특정 경향이나 주제에 의해 접근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진 반면에, 개개의 문학작품에 대해 분석 정리하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하고 나서, 현재 벌어지는 일련의 작업을 통해 그 미흡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총체적인 문학사를 다시 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한동림 기자